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수립 의견수렴 토론회

제주문화예술 향후 5년 "일상이 문화"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청사진 제시
예산 확보·실효성 갖추기 위한 촘촘한 계획 필요

제주문화예술의 향후 5년(2023~2027) 정책 방향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기존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에 맞춰졌던 계획의 초점은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가치 향상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종합비전(안)으로 제시된 '일상이 문화로, 함께 행복한 제주'에 대해선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안) 확정에 앞서 14일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도내·외 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지난 4월부터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메타기획컨설팅은 이날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2023~2027)' 종합비전과 전략별 세부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메타기획컨설팅은 종합 비전(안)으로 '일상이 문화로, 함께 행복한 제주'를, 그에 따른 4대 가치로 존중, 고유, 공유, 확산을 내걸고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 확대 ▷문화예술·문화산업 기반 강화 ▷제주 문화 고유성의 지속 및 확산 ▷문화 협치·행정 체계 개선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략별 핵심과제(안)는 일부 오영훈 도정의 공약과제와도 연결돼 있다.

먼저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15분 도시, 일상문화공간 연계 및 기반 강화 ▷마을문화 활성화 ▷도민 문화활동 접근성 강화 및 모니터링 ▷민간예술/창작자(단체) 활동 적극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다각화 ▷예술인 복지기금 운영 및 참여 소득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이밖에 ▷문화예술·문화산업 연계 창작시설 조성 및 활용도 제고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 양성 ▷문화예술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장기 과제) ▷예술계+콘텐츠산업계 네트워킹 ▷제주 문화자산의 활용성 및 가치 제고 ▷문화협력위원회 운영 확대 ▷공공 문화 기관 체계 재정립 ▷문화예술 재정 지속 확충 ▷제3차 문화예술진흥계획 정기적 모니터링 등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토론자들은 계획(안)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연도별 촘촘한 계획 수립, 연차별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연차별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김수열 제주문예재단 이사장은 비전에 미래상 반영과 계획(안)의 문화산업측면 접근이 미약함을 지적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분과별 토론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변별력이 보이지 않음도 지적됐다. 또 계획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제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오은지기자

전시장 내부 모습.

굿, 심방… 제주의 영험한 순간을 담다

제주 청년작가 이계나 첫 개인전 '무도:巫島'

3년 전 다시 고향 제주로 돌아와 어릴 적 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될까' 고민할 때 제주 출신 패션디자이너 박린준씨가 방향성을 제안해줬고, 그때 종달리 해신제를 만났다.

이계나(29) 작가는 당시 "큰 에너지를 느꼈다"고 했다. 제주의 강인한 생명력을 지탱해온 심방문화를 미술 작품에 담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그렇게 제주의 젊은 작가는 굿과 심방, 제주의 영험하고 신비로운 순간들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제주 무교의 정신을 원천으로 삼아 첫 전시 '무도:巫島'를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소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어촌계 공동창고 미술관(구좌읍 김녕리 1270-2)이다. 김녕리 어촌계의 도움으로 공동창고를 전시장으로 쓸 수 있게 됐고, 지난 가을부터 작가가 직접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그 과정에 기획부터 작품·공간디자인까지 패션디자이너 박린준 디렉터와 서순실 심방의 도움도 받았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전시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전시장에 가면 굿, 심방, 무구, 배방선, 본향당 등 작품 24점을 만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흑백으로 보는 제주 "새로운 묘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제33회 회원전

강병진 작 '주목지신(柱木之神)'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가 회원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회원전의 주제는 'Jeju in Black & White(흑백으로 보는 제주)'. 흑백으로 표현된 제주의 모습들을 담은 사진 128점이 출품돼 관람객을 맞는다.

이창훈 지회장은 "우리가 매일 보는 제주의 모습들도 흑백을 통해 본다면 또 다른 감흥으로 다가올 것이며, 흑백사진으로 표현되는 시각적 차이는 사진예술을 감상하는데 새로운 묘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의 속살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초대장을 띄웠다.

전시는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 문예회관 제1, 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한편 개막일 오후 5시부터 오픈식 행사 겸 올해 '오걸상' 시상식이 열린다. 오은지기자

제1회 국제 현대미술 청년작가 공모 박주애 대상

총 13명 수상… 내년 '아트제주2023'서 특별전

제1회 국제 현대미술 청년작가 공모 'UP & COMING ARTIST AWARD'에서 제주출신 박주애 작가가 '밀어내는 밤'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사)섬아트제주(이사장 강민)가 주최·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모는 40세 이하 청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모 결과 한국, 일본(도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대만(타이페이), 미국(뉴욕) 총 5개국에서 288명이 지원해 약 550점이 출품됐으며, 심사를 통해 제주, 서울, 뉴욕, 도쿄, 타이페이, 포항 지역 작가 1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훌륭한 작품이 많았고, 많은 작가가 참여해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흐름과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총평했다.

섬아트제주는 앞으로 수상작가의 전시 활동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내년 7월 말 개최되는 '아트제주2023' 특별전 참가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앙상블 까메라타 "메리 크리스마스"… 17일 음악회

앙상블 까메라타가 음악회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예열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네 번째 맞는 앙상블 카메라타의 크리스마스 음악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Merry Christmas Merry Camerata'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이날 공연에선 정통 클래식 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날 수 있다.

앙상블 까메라타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악회는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오디토리움에서 이달 17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무료 공연이며 네이버 폼(사전 예약 신청 링크 https://naver.me/FgvSiWKH)을 통해 선착순 50명 예약을 받고 있다. 오은지기자